전남 3곳도 본격 보선모드…순천 '돈 선거 의혹' 과열 양상

고흥·순천 도의원, 보성군의원…민주, 오늘부터 예비후보 적합도 조사
순천 지역위, 금품제공 조사특위 구성…'소병철·노관규 대리전' 양상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전남에서도 4·7 보궐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 도의원 선거구 2곳, 군의원 선거구 1곳 등 총 3곳에서 치러지는 보선에 앞서 민주당이 18일부터 후보자 적합도 조사, 후보자 면접, 경선을 거쳐 3월 초까지 후보자를 확정한다. 순천 등 일부 선거구에서는 금품 제공설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과열 양상도 보이고 있다.

17일 전남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남도당은 18, 19일 이틀에 걸쳐 예비후보자 적합도 조사를 진행한다. 도의원 선거구 2곳(순천, 고흥)에서 각각 2명씩 총 4명의 후보자, 군의원 선거구 1곳(보성)에서 2명의 후보자 등 자당 소속 후보자 6명에 대한 적합도 및 인지도 조사다.

순천시 제1선거구에서는 정병회(58) 예비후보와 주윤식(60) 예비후보가 민주당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 중이다. 정 예비후보는 제10대 전남도의원을 지냈고, 민주당 도당 지역발전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 예비후보는 순천시의회 부의장을 지냈고 현재 여수 오션리조트(주) 대표이사다.

고흥군 제2선거구에서는 박선준(42) 현 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과 유민식(58) 예비후보가 경쟁한다. 유 예비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도의원 경선에 나선 바 있다.

보성군 다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예비후보 2명, 무소속 예비후보 2명이 경쟁한다. 민주당 소속은 문덕면장을 지낸 박정욱(65), 보성군의원을 지낸 조영남(여·59) 예비후보이다. 복내면 청년회장 윤정재(51), 율어면 청년회장을 지낸 김미열(54) 예비후보는 무소속으로 뛴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18~19일 적합도 조사, 20일 공관위 후보자 면접 등 1차 심사와 경선(권리당원 100%)을 거쳐 3월 초까지 후보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1차 심사에서 적합도, 도덕성 등을 평가해 일부 후보를 컷오프시킬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기초의원 3개 선거구 가운데 뜨거운 곳은 김기태 도의원 별세로 보선이 치러지는 순천 제1선거구다. 민주당 정병회, 주윤식 예비후보가 맞붙었다. 순천 정가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정 예비후보와 주 예비후보가 각각 소병철 후보자(현 국회의원), 노관규 후보자(전 순천시장) 측에서 주요 포스트를 맡아 선거운동에 앞장섰다는 점을 거론하며 '소·노 대리전으로 도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최근 후보자 금품제공설이 지역 사회에 파다하게 퍼져 전남도당이 곤혹스러운 형편에 놓였다. 민주당 순천·광양·구례·곡성 지역위원회(위원장 소병철)가 지난 16일 '금품제공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발대식을 열고 진상조사에 나섰으나, 경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김형호 기자 khh@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전남도의회가 17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12조+α' 당정 4차 지원금 규모 조율

기재부 12조 vs 민주당 20조 이견…'감당 가능 규모' 놓고 줄다리기

당정이 코로나 19 관련,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 등을 조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7일 국회에서 실무 협의를 열고 추경 편성을 위한 구체적 논의에 착수한다. 하지만 전체 지원 규모에 대한 민주당과 정부의 인식에는 차이가 뚜렷하다.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초안으로 12조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넓고 두터운 지원'으로 기조를 정한 민주당은 20조원을 하한선으로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좌판 노점상이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앞선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 때 챙기지 못한 사각지대까지 범위를 넓히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되도록 지원액도 크게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일자리 예산, 백신 확보 예산 등도 추경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예정된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달라"고 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1분기 중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만 4조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최소한 20조 이상은 필요하다"며 "(앞선 3차 재난지원금은) 실질적으로 받는 피해에 비해 위로금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지원의 범위와 규모를 늘리자는 전체적인 방향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만큼 '감당 가능한' 총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두고 당정 간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정부와의 논의를 마무리 짓고 3월 초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한전공대법 조속 제정하라"

전남도의회 성명…국회에 촉구

전남도의회는 1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내고 "한전공대법은 에너지신산업을 국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국토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이 담겨있다"며 여야가 조속히 한전공대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3경원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에너지 신산업을 대한민국이 선도하려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가 필수"라며 "도전적 연구와 혁신적 교육으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명을 주도한 이민준 의원(민주당·나주1)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내년 예정된 개교는 늦어지고, 그만큼 선진국과 기술격차도 벌어지게 된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측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전공대법은 한전공대의 2022년 3월 정상 개교와 지속 가능한 학교 발전을 위한 법률안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이형석 "전 국민 백신 접종, 지역별 총력 지원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을) 국회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집단면역이 이뤄지고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일상을 되찾게 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총력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 인구밀도와 의료기관 위치에 따라 예상 백신 접종 대상자 규모가 천차만별이어서 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혼잡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사전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지역별 재정 소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특별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고령자 백신 접종도 신청과 안내, 접종, 사후관리까지의 과정이 보다 안전하고 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철현 "소나무재선충병, 주변 확산 선제 대책 수립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은 "매년 1000억원대 방제 비용이 들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조림정책과 연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업무 보고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최근 잣나무로 확산해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소나무재선충병이 국내 임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정책의 변화를 제안했다.

올해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은 900억 원으로 1,164억 원이 편성된 조림사업 예산과 비슷한 규모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은 최근 5년 사이 70%가량 감소했으나, 소규모 피해가 분산해 발생하면서 방제 비용은 8.7% 감소에 그치고 있다.

주 의원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잣나무로까지 확산하고 있어 잣은 물론 송이버섯 등 국내 임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선제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삼석 "괭생이모자반 피해 7년째…해수부 대책 세워야"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발생한지 7년이 됐지만 해양수산부는 세부적 지침도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17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해수부의 부실대응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장관이 맡고 있는 농식품부의 AI대응과 비교해도 확연히 드러난다"며 괭생이모자반 대응체계를 꼬집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적지않은 피해저감 및 대응 예산이 투입되어 왔음에도 괭생이모자반 어민 피해가 되풀이되는 것은 세부 대응 지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한 결과이다"고 지적했다.

해수부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이후 총 4건의 '발생원인 및 저감방안 등 괭생이모자반 관련 연구' 예산으로 약 50억원, 2015~2020년 '모자반 수거비용 및 피해복구비'로 약 40억등 올해 피해 지원비용 등을 제외하고도 약 90억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장/단기, 최고 투자처

▶ 남구 덕남동 임야, 지분매매
▶ 광주대 지나서 전남대병원 근처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64-21번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됨
▶ 평당 20만원씩 200평 이상 매매함

문의. 010-3605-5000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 만원)

콘도명	사용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 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 1개	2,530	1,780
		스위트형 방 2개	3,600	2,680
한화 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천,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 (방 2개)	2,480	1,680
		디럭스형 무기명 (방 2개)	3,110	1,880

콘도명	사용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리솜 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덕산 스플러스, 안면도 아일랜드, 제주 퍼스픽	실버 (24) 방1	2,850	1,680
		골드 (28) 방2	3,210	1,980
		로얄 (34) 방3	4,890	3,480
켄싱턴 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충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 (21) 방1	1,980	980
		스위트A (26) 방2	2,120	1,280
		스위트B (31) 방2	2,600	1,380
		로얄 (35) 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